

# “에코페미니즘 - 불교생명관 상통”

불교환경교육원 심포지엄서 주장

## 환경·여성운동 ‘無我’ ‘색즉시공’ 지향 자연친화적 가치관 21세기 대안이론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과 불교가 있다. 지난 21일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이 ‘에코페미니즘과 우리의 여성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생명존중 사상이 불교의 불이(不二), 공사상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불교가 21세기 대안이론으로 주목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김정희씨(서경대 강사)는 ‘동양사상과 생태여성론에 비추어 본 여성운동’에서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은 생명존중 사상이라며 “개별 인간만을 강조한 서구 1분주의가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에 지배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만든

등 서구사회의 정신적 표류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에코페미니즘은 모든 존재를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 환경과 여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경향”이라며 “(화엄경) <금강경> <중관론> 등에 나타난 불이(不二),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 空即是色), 일체개공 실유불성(一切皆苦 悉有佛性) 사상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가 에코페미니즘과 같은 신 사상·문화운동을 수용하는 등 제반 사회과학과의 비교·연구를 확대할 때 비로소 21세기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것”이

라고 강조한 김정희씨는 구조의 변혁에만 머물러 있는 서구적 에코페미니즘에서 한층 나아가 무아(無我)를 깨닫고 인간의 내적 변혁을 추구하는 동양적 에코페미니즘을 제안했다.

“한국 근대 종교사상에서 나타난 여성과 에코페미니즘”을 발표한 하정남교수(영산대학교)는 “에코페미니즘은 인류가 환경문제를 자각하면서 지구가 인간의 유일한 거주지이며 식물·동물·인

간은 하나의 몸이기에 지구가 죽으면 인간의 존재도 사멸하게 될 것이라는 자연친화적인 가치관에서 등장했다”며 “따라서 개개의 존재들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인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에코페미니즘은 전통적인 동양의 세계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에코페미니즘이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인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의 만남이다. 지구 환경의 위기와 여성의 억압구조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공동요인을 찾아 문제를 풀자는 이론이다. 즉 환경·여성문제가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의 억압과 불평등한 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환경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해자인 남성과 인간을 타

### 환경과 여성운동의 만남 어울림과 균형 강조 이론

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원래 하나라는 입장에서 이들의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만물의 조화와 화합을 강조한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론.

국내내 여성중심의 환경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90년 초 첫선을 보였고, 이론의 참신성과 실천적 가능성으로 국내 환경·여성 운동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원효설화 변천 살펴보면 시대별 민중의식 알수있다”

오대혁씨 ‘원효설화 구조와 의미’ 발표

원효스님 관련 설화의 변천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 뿐 아니라 당시 민중의 바람과 의식의 변천사까지 고찰한 논문이 나왔다.

오대혁씨(동국대 국어국문학 박사과정)는 ‘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에서 “원효설화는 일연스님, 고려·조선의 민중, 중국·일본의 승려계층, 조선 후기 사지(寺誌) 기록계층 등이 설화의 전승과 수용의 주요 계층을 구분해 연구하면 당대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식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에 따르면 일연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원효불기’에서 원효설화를 탄생·대중교화·참사·관음설화 등으로 기록했고 고려·조선의 민중은 이 설화를 찬미와 흥미거리로 각색했으며 중국·일본 등에서는 고행·성도설화로 전승했다.

오대혁씨는 “원효설화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설화를 읽고 전승한 수용자의 태도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승려들은 설화를 통해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전승하고 대중의 신심(信心)을 강조했다”며 원효설화의 아류가 고려·조선의 민중들에게 널리 퍼졌는데, 이것은 민중들이 삶의 고난을 승화시키기 위해 설화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씨는 “원효설화에서 고려·조선시대의 불교의 성쇠(盛衰)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 뿐만 아니라 당시 민중의 바람과 의식(意識)의 변천사까지도 읽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연구회(회장 이종찬)의 <불교문학>(가을호)에 게재된다.

## 4와 경전



13

### 지장경



반영규  
지버의소리 대표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더구나 근거까지 낮아서 많은 경전을 읽지도 못했고 또 경을 읽는다 해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부처님을 생각(念佛)하고 설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독송한 몇몇 경전중에 <지장보살본원경>이 특히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다른 보살님들처럼 보관(寶冠)도 쓰지 않고 맨 머리에 석장을 들고 계신 소박한 모습의 지장보살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네 이름, 네 소행이 어찌 그러냐”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 하고 착하게 살았다” 하고, 금지옥염 귀여운 자식이지만 엄하게 타이르는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엄하게 훈계하시지만 미혹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죄를 저지르고, 울며불며 지옥에 끌려가 말 못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어쩌다가 뭇된 짓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자식이 안쓰러워 서 자식 육바라지를 하는 애뜻한 모정

할 수 있는 한, 아니 전력을 다해서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원(願)을 세워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제격이다. <지장경>에, 지장보살을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예배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좋은 과보를 누리게 되며 후시 악도(惡道)에 떨어졌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수명이 늘고 죄가 사라지며, 삼칠일 동안 “지장보살, 지장보살, ...” 하고 외면 지옥까지라도 찾아가서 꺼내준다고 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믿었다고 다짐한 처음 마음을 끝끝내 지켜가면 마침내는 금빛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며 “너는 장차 부처를 이루리라”고 수기를 내리신다고 했다. 참으로 고맙고도 고맙지 않은가. 온갖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대지(大地)처럼 후덕하고 고마운 보살이라 해서 지장보살이라 일컫는다고 한다. 지장보살은 현재에서도

## “탐욕부리다 슬한 죄 짓는 말법시대

## ‘나무 지장보살...’ 참회독송 업장소멸”

(母情)처럼 무간지옥까지 찾아다니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래서 더욱 중생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아무나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하고 진심으로 모두치며 지극하게 구원을 바라는 죄인만 구원을 해 주신다. 무간지옥에서 고통에 못이겨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아비규환) 장본인이 못하면 인연있는 피골이라도 대신 지장보살님의 구원을 청해야 한다. 목련존자가, 살아 생전에 못된 짓만 하다가 마침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대신하여 참회를 하고 당시의 선지식들에게 정성껏 대중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구원했듯이, 또 <지장경>에 나오는 광목녀(廣目女)가 각화정 자해할때까지 지극하게 기도한 끝에,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원했듯이.

물론만이 지상의 보배인 양 착각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슬한 죄를 짓고 사는 현재 말법시대의 우리들이야말로 무간지옥행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명정하게 앉아서 무간지옥을 갈 수는 없다.

이익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저 세상(冥府)까지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 모든 육도 중생들을 구원하고 고통에서 건져낼 것을 부처님께 위촉받고 또 스물다섯 고통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다 구원으로 모두가 성불한 연후에 스스로 성불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것이다.

이 경은 비교적 길고 번다해서 독송해도 그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화엄경 약한처럼 간결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서 요점을 간추려 운(韻)을 붙여 독송하기 좋게 엮어보았다. ‘불발에 피는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 도서출판 화은각에서 펴냈다. 고맙게도 김희경씨가 곡을 붙여 지난해 공연을 해 큰 호응을 받았고 CD로도 나와 있다. 어느 스님께서는 목탁에 맞춰 독송을 해 보았더니 신심이 나더라고 격려를 해주신 일도 있다.

요사이처럼 온갖 고통과 재앙, 악행이 난무하는 말세에 <지장경>으로 공덕을 짓고 크고 작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장경>독송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이다.

### ‘팔리어 예불문’ 첫 번역출간

성전協, 부처님 당시의식 21가지 수록

순회강연’을 계기로 이 책을 널리 소개하겠다”고 말한다.

성전협회는 이외에도 팔리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문법·독해·사건 등으로 구성된 <기초 팔리어 문법>도 함께 출간했다.

한편 6월21일 광주 광복사(주지 능인)에서 열린 한국팔리성전협회 창립법회에는 스리랑카 세나비라뜨네 대사, 상명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도성스님(태종사) 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1천개의 연등을 밝히고 ‘1천일기도’ 입재식을 가졌다.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학·불교미술

### 세계 우수 불교학 연구소·미술관 순례기회



인터넷 상에서 브리스톨대학(영국) 코넬대학(미국) 리덴대학(네덜란드) 등 해외의 우수 대학의 불학(佛學) 연구소와 홍콩, 일본, 미국 등지에서 개설된 불교 미술관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사이트이다.

랜달 스크트(45, 美)가 개설한 ‘BSA’는 일본인 요주(Yoju)의 지조(Jizo) 조각품 9점을 비롯해 총 45점의 불교 미술품 그래픽을 제공한다.

리덴대학이 1993년 개설한 ‘아시아 국제연구소’와 현재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림과화재단’ 등 불학연구소 25곳의 선적(禪蹟) 데이터와 뉴스레터도

열람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제연구소’는 불교교리와 관련된 50여개의 텍스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BSA’는 정토진종 삼장부·티벳·중국·일본·한국불교를 비롯 정토진종, 일련종, 선불교 등 종파별 분류를 통해 총 60여개 사이트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어·팔리어·티벳어·한국·일본 등 불학(佛學) 관련 언어의 폰트(글자)도 제공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학문 교류를 돕고 있다.

주소 <http://avocado.wustl.edu/~rrscott/#Arts>

## 티벳의 세계적 고승 난치병 진료 초청법회

부처님이 탄생하신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산의 티벳 깊은 곳에서 모진 고생의 수도로 신령한 약초를 찾아 내고 난치병을 고치는 영험한 초능력을 얻어 열글만 보고 병을 진단 위자로 티벳성자이고 왕인 까르마파를 가르친 16대 16대 최고 성자이고 왕인 ‘다라이라마’의 왕사를 여러원에서 도닥라마스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난치병을 고치고 정신적 평안을 얻고 한가지 우주의 그림인 만다라 탱화를 친견하여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인연을 맺고자 법회를 개최 바랍니다.



하는 77세의 도닥 라마스님은 티벳 한의학의 최고 권 및 17대 왕사를 치료한 주치의사이며 역시 현재 티 치료하는 주치의사를 가르친 스승입니다. 이번에 희귀한 약초로 만든 영약으로 불자들이 육체적 소원을 성취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하늘에서 온 받으며 재액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친필 티 하오니 평생에 한번쯤 있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도닥 라마」스님을 수행하는 상계 라마스님과 노노라마스님은 유명한 만다라를 조성하는 작가입니다.

- 법 회 일 시 : 1997년 양력 7월 5일부터 7일까지(3일간)
- 전 화 접 수 : 대구(053)655-3027·2227(7월 3일까지 선착순 1일 100명 마감)
- 법 회 주 최 : 여래원한방(대구시 달서구 본동 1138번지)

